

장계연 아네스 장

사람의 일상이 살아나는 환경을 연구합니다.

UAL, Central Saint Martins에서 MA Industrial Design을 전공했습니다.

특급 호텔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을 총괄하며 '가구가 공간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공간을 만들어왔습니다.

반려가구를 디자인할 때에는 반려가족이 함께 머무는 환경을 고민했고, 현재는 공간과 가구를 매개로 사람의 일상이 살아나는 환경을 연구하며 공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그 시선이 버려진 가구와 옷을 다시 연결하고, 새로운 머무름의 경험을 만드는 작업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가구는 공간을 살리고, 환경은 사람의 일상을 살립니다.

Rhythm Study 01 : Re:Seat



다시 자리가 되다.다시 앉게 하다.다시 살아나는 자리. 이 의자는 낡아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의자를 판매한 분은 원목 중심의 인테리어를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바꾸면서 더 이상 공간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은색으로 다시 칠하는 것도 고민했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더 잘 어울리기를 바라며 의자를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새로운 색을 입히고, 입지 않게 된 옷을 쿠션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물은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의자도 누군가의 하루에 다시 머물며,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